

유가 배럴당 30달러 시대

WTI 9.6% 폭락...4년만에 최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하루 220만 배럴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시대로 접어들었다.

18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 증가보다 3.84달러(9.6%) 폭락한 배럴당 36.2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날 장중 한때 배럴당 35.98 달러까지 추락하면서 2004년 1월 3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날 증가보다 0.84달러(1.8%) 내린 배럴당 44.69달러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OPEC의 감산 결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배럴당 25 달러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OPEC의 감산 결정보다 석유 수요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고 말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전망했다. JP 모건도 2009년 유가 예상치를 기존의 배럴당 69달러에서 크게 낮춰 배럴당 43달러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다.

/연합뉴스

신안 천일염산업

순천 친환경농업

지역특구 새로 지정

정부, 전남 2곳 등 9곳 지정...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 기대

신안 천일염산업특구와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등 전남지역 2곳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 16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열어 천일염산업특구 등 9개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특구는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영월 박물관특구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충청사과특구 ▲보은 대추·한우특구 등이다.

특구 지정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신안 천일염산업특구는 세계적인 명품 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인력양성, R&D구축, 홍보사업 추진 등을 통해 소득의 부가가치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순천 친환경농업특구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을 확대해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업소득을 높이고 유통시설 확충·브랜드 강화·관료화 등이 추진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특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모범특구에 대해 정부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이 부진한 특구에 대해서는 계획변경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역특구법의 개정에 따른 차질없는 제도운영과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활용, 광역경제권 활성화 지원 등 정부지원 강화 등을 통해 특색있는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준공식.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준공식이 19일 광주 북구 오룡동 청사 입구에서 열린 가운데 원세훈 행정부 장관, 임주 대상 기관장 등이 준공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내평기자 mjna@kwangju.co.kr

배로 만든 술 나왔다

靑 국내 첫 '배술' 출시

국내 최초로 먹는 배로 만든 술이 출시됐다.

청와대는 19일 "배를 가공한 주정으로 만든 소주와 기타 증류주를 출시했다"면서 "향미를 위해 배를 첨가한 술은 있었지만 배를 이용해 주정을 만들거나 술의 주원 원료를 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배술 출시로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배 소비 촉진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배술 출시에는 김홍식 진로발효 대표, 임효섭 창해에탄올 대표, 배상면 주류연구소장, 이종진 대한주류공업협회 상무, 김현 디자인파크대표 등이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민간주택 전매제' 폐지

국토부...공공주택은 유지

신규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매 제한이 내년 3월이후 민간주택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미 분양된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주택은 분양 시점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강남 3구에 대한 투과외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는 유지하되 민간택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없앨 방침이다.

/연합뉴스

與 "내주 법안심의" vs 野 "상임위 전면 봉쇄"

여야 쟁점법안 심의 놓고 상임위 곳곳서 '정면 대치'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단독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이 19일 국회의원회의를 이용해 접거하고 상임위 전면 봉쇄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상황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주부터 모든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민주당을 이를 '정쟁선포'로 규정하고 일선분회의 각오를 밝혀 일촉즉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대치 속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법안심의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제살리기 법안뿐만 아니라 이념논쟁을 부릴 수 있는

사회개혁 법안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혀 상임위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등 4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의 '회의장 점거농성'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오전 국회에서 법안점거회의를 갖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MB(이명박)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내주부터 모든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를 돌입키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를 점거농성 중인 국회의원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입

법점거'에 맞서 입법부의 각오를 상임위 전면봉쇄에 나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야는 또 전날 '외통위 폭력사태' 책임을 둘러싸고 성명과 논평을 쏟아내며 '네티트 공방'을 펼쳤으며 고소, 고발을 통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한나라당 차명인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국회가 민주당 때문에 '난장판 국회'가 되고 있다"고 했고,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회의장 점거를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리직, 폭력적으로 의인 진입을 막은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발(發) 의회 공습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이른바 '금치산 정당'임을 선포한 날"이라고 공격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배수펌프장 17곳, 정전시 무용지물

감사원 "비상전원 확보 않고 누수 등 관리 부실" 지적

광주·전남지역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가운데 일부가 비상전원을 확보하지 않아 정전시 사고 발생할 경우 펌프장 가동 중단,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소방방재청과 재해 피해

규모가 컸던 전국 4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배수펌프장 가운데 62%가 비상전원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완도군에 설치된 4개 배수펌

프장 가운데 8개가 비상전원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고흥의 7개 펌프장 중 4곳과 순천의 4개 펌프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의 6개 배수펌프장 중 1개가 비상전원을 갖추지 않았으며, 2개는 제진기(크레인용)를 이용해 배수로에 유입되는 부유물을 제거하는 장치) 작동 불량 그리고 또 다른 2개는 유입·출문 작동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개에서는 펌프관 배관누수 현상이 발견됐다.

/홍행기자 redplane@

시 설

영재고 선정 탈락 '과학 광주' 걱정된다

지역 과학영재의 산실인 광주과학고, 전남과학고가 정부에 과학영재학교 전환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반면 대구과학고와 경기과학고는 낙점을 받아 기존 서울, 부산까지 합해 전국 4곳에 과학영재고가 자리하게 됐다.

과학영재학교 지정 탈락은 지역민들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영남권에 는 두 곳이나 지정됐는데, 호남권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의 우려는 이로 인해 과학영재 육성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 R&D의 주역으로 키울 기회를 놓쳤다. 지난 1990년대 첨단과학산단 개발 이후 광주과학기술훈 설립, 광산업 육성, 첨단과학 연구소 유치로 대전과 함께 지방 과학의 양대축으로 불리던 광주가 후발 도시인 대구에 밀릴 가능성도 커졌다.

지방대의 쇠퇴에 이은 교육 인프라의

중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불충분한 교육 인프라는 인구감소를 부르 고,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에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인구유출이 극심했던 지난 38년간 광주·전남의 경제도 크게 주춤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이 지역 인구는 410만명에서 330만명으로 80만명이 줄었다. 전남은 전복 다음으로 인구 유출 정도가 극심했다.

유출 인구 중 대부분은 학업과 취업 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 젊은이들이었 다. 그 결과 광주·전남은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낙후의 대명사가 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학영재고 선정 을 재고해야 한다. 지역사회도 일자리 가 많은 산업육성 등 인구 불리기에 올인 할 때이다.

시민 품으로 돌아온 무등산 서석대·입석대

무등산 서석대와 입석대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훼손을 막기 위한 주변 정비 공사가 끝나 오일부터 일반에 개방된 것이다. 광주시민의 자랑이요, 자존심인 서석대와 입석대를 시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돼 환영한다.

서석대와 입석대는 1억5천만 원 전인 중생대 백악기의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기둥·병풍 모양의 바위 덩어리(주상절리대·柱狀節理帶)로 지난 2005년 12월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됐다. 경관이 수려한데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점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탐방객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입석대와 서석대의 하부 흙이 무너져 돌기둥 일부가 내려앉고 수백 개의 불행 사나운 낙석까지 새겨지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주변 등산로도 망가졌다.

광주시 무등산관리사무소는 급기야

지난 2006년 7월 탐방객들이 천연기념물 직접 접촉할 수 없게 출입을 제한 했다. 올 4월부터는 장블레~입석대~서석대 구간을 막고 11억2천500만원을 들여 탐방로를 재 정비한 뒤 2개의 관광 대도 설치했다.

주변 정비를 마친 입석대 등은 앞으로 한 달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관광대 입장이 허용된다.

광주시는 이 기간 동안 이용상태를 살펴본 뒤 탐방객 제한, 사전 예약제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적절한 보호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입석대와 서석대는 광주의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시민과 함께 지켜온 역사의 산증인이다. 후손들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줘야 할 '광주 정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더 아끼고 보호해 영원한 시민의 빛으로 남겨 해야 한다.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란다.

'엄힌 실타래' 이번엔 풀릴까

옛 전남도청 별관 해법찾기

추진단-공대위 첫 실무협상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이하 추진단)과 '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공대위' (이하 공대위)가 19일 공식적인 첫 실무협상을 가졌다.

추진단과 공대위, '도청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실무협상을 갖고 '별관 문제 해결

을 위해 상시 대화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과 공대위는 '철거와 보존'이라는 양측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지만,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 주 중 실무협상을 재개 하기로 했다.

추진단과 공대위가 도청별관 문제를 놓고 공식 협상 테이블을 마주한 것은 도청별관 논란이 불거진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종재 前 의원 별세

이종재 전 의원이 18일 오후 8시24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보성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제6대 국회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7~9 대와 12, 15대 의원으로 활동하며 신민당 정책심의위원회 의장 및 부총재, 민주당 부총재 등 굵직한 직책을 역임했다.

정치가활동이 금지된 80년대에는 민주회추진협의회 운영위원, 민주인권연구회 회장, 야당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보성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정계에서 은퇴한 후에는 한 나라당 상임고문과 고려대 교수회 고문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장남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과 종옥(한국의국어대 경영학부 교수), 종오(사법연수원 수석교수)씨가 있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은 22일 오전 7시, 장지는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선영. (02)921-2899

광주일보 '빛의만경' - 김종두.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person sitting at a desk with a computer, looking thoughtful. The desk has a sign that says '2%' and there are some papers and a bottle on it.

내년 '청년인턴' 1만여명 선발

광주경찰청도 '행정인턴' 69명 채용

대졸 취업준비생들이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고 최장 1년간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청년인턴'이 내년 지방자치단체에서 5천600여명 채용되고, 중앙부처의 청년인턴 채용규모도 예초 계획(2천600명)의 두 배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자체에서 청년인턴 5천640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자체 청년인턴십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청년인턴십'은 대졸 미취업자가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 가량을 받으면서 최장 12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행안부는 내년도 국비 155억원을 지원해 각 지자체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2%인 5천640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지자체에서 청년인턴이 배치돼 근무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채용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인턴 69명을 채용하고 이들은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등에 배치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4일까지이며 응시자격과 접수방법은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for advertising and circulation, and website information.